

보도자료	2013. 5. 23(목) 12: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3. 5. 23(목)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담당자	과 장 : 공 미 숙 (042.481.2264) 사무관 : 이 진 석 (042.481.2565)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이 자료는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로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와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1. 통계표에 수록된 각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임금근로자에 관한 연령, 교육정도, 산업, 직업 등 기초적인 자료는 2013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3. 조사결과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비율)는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함
 4.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집계한 월평균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특성(성·연령·학력·경력·근속기간·근로시간 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평균하여 집계한 것이므로, 월평균 임금간의 단순비교를 통해 임금격차를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5. 이 보도자료에 사용된 산업별 분류와 직업별 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와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07년)를 따랐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주요내용과 신-구분류 연계표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의 「통계분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21, 22쪽 참조

- 차 례 -

▣ 2013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1
I.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3
2. 한시적 근로자	4
3. 시간제 근로자	5
4. 비전형 근로자	6
II.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1. 성별 특성	7
2. 연령계층별 특성	7
3. 산업별 특성	8
4. 직업별 특성	9
5. 교육정도별 특성	9
III. 항목별 분석	
1.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10
2. 평균 근속기간	11
3. 주당 평균 취업시간	12
4. 최근 3개월(1~3월)간 월평균 임금	12
5. 근로복지 수혜 여부	14
6. 사회보험 가입 여부	15
7. 교육·훈련 경험 비율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16
8. 주40시간 근로제 실시 여부	17
9.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	17
10. 노동조합 가입 비율	18
11. 임금 형태	19
※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20
<붙임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21
<붙임 2>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02. 7. 22)	23
<붙임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격차 분석 개요	24

< 2013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

- 2013년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73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7천명(-1.3%) 감소
 - 한시적근로자 333만1천명, 비전형근로자 220만8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6만3천명(-1.9%), 5만2천명(-2.3%)이 감소한 반면, 시간제근로자는 175만7천명으로 5만6천명(3.3%) 증가
 - 한시적 근로자 중 비기간제 근로자가 10만2천명(-12.2%) 감소
 - 연령계층별로는 20대(-3만1천명, -3.1%), 30대(-8만6천명, -7.5%), 40대(-10만3천명, -7.3%)를 중심으로 감소
 -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6만4천명, -9.7%), 건설업(-4만1천명, -6.2%) 등에서 감소
 -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8만2천명), 기능·기계조작종사자(-6만1천명), 사무종사자(-3만9천명) 등에서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 증감 >

	<u>2011.03</u>	<u>2012.03</u>	<u>2013.03</u>
비정규직 (천명)	5,771	5,809	5,732
전년동월증감	273	39	-77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9.2%로 전년 동월대비 1.4%p 하락
 - 자발적 선택 사유 중 「근로조건에 만족」이 47.5%로 가장 많았고, 비율은 전년동월과 동일

< 2013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

-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로 전년동월과 동일
 - 한시적 근로자(2년 7개월)는 2개월 줄어 든 반면, 시간제 근로자(1년 6개월)는 2개월, 비전형 근로자(2년 4개월)는 3개월 증가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시간 감소
 - 한시적 근로자(41.2시간)와 비전형 근로자(41.2시간)는 각각 1.2시간, 0.5시간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21.4시간)는 0.1시간 증가
- 최근 3개월(1~3월)간의 월평균 임금은 141만2천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4% 감소
 - 시간제 근로자 3만원(4.8%), 비전형 근로자 2만1천원(1.6%) 증가한 반면, 한시적 근로자는 3만7천원(-2.3%) 감소
- 퇴직금(0.1%p), 상여금(1.4%p), 시간외수당(1.8%p), 유급휴일(1.7%p) 수혜율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0.5%p), 고용보험(-1.1%p)은 전년동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건강보험(0.3%p)은 상승
 -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2.1%p), 건강보험(-1.1%p), 고용보험(-2.1%p) 가입률 모두 하락
 -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0.7%p), 건강보험(1.8%p), 고용보험(0.4%p) 가입률 모두 상승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이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비율은 55.6%로 5.0%p 상승

I.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2013년 3월 임금근로자는 1,774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2천명(1.8%) 증가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1,201만2천명(67.7%)으로 40만명(3.4%)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573만2천명(32.3%)으로 7만7천명(-1.3%)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비는 32.3%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음

	2010.08	2011.08	2012.08	2011.03	2012.03	2013.03
◦ 임금근로자 (천명)	17,048	17,510	17,734	17,065	17,421	17,743
- 정 규 직 (천명)	11,362	11,515	11,823	11,294	11,612	12,012
- 비정규직 (천명)	5,685	5,995	5,911	5,771	5,809	5,732
·임금근로자대비(%)	(33.3)	(34.2)	(33.3)	(33.8)	(33.3)	(32.3)

<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2. 8		2013. 3		증감 (률)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임금근로자 >	17,421	100.0	17,734	100.0	17,743	100.0	322 (1.8)
◦ 정 규 직	11,612	66.7	11,823	66.7	12,012	67.7	400 (3.4)
◦ 비정규직 ¹⁾	5,809	33.3	5,911	33.3	5,732	32.3	-77 (-1.3)
- 한 시 적	3,394	19.5	3,403	19.2	3,331	18.8	-63 (-1.9)
- 시 간 제	1,701	9.8	1,826	10.3	1,757	9.9	56 (3.3)
- 비 전 형	2,260	13.0	2,286	12.9	2,208	12.4	-52 (-2.3)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2. 한시적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는 333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3천명(-1.9%) 감소하였음
-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9천명(1.5%) 증가하였으나, 비기간제 근로자는 10만2천명(-12.2%)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구성비는 45.2%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으나, 비기간제 근로자는 12.9%로 1.6%p 하락하였음
- 한시적 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60만9천명, 여자 172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만9천명(-1.2%), 4만4천명(-2.5%) 감소하였음

< 한시적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2. 8		2013. 3		증감 (률)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전체	<비정규직근로자>	5,809	100.0	5,911	100.0	5,732	100.0	-77 (-1.3)
	○ 한시적근로자	3,394	58.4	3,403	57.6	3,331	58.1	-63 (-1.9)
	- 기간제	2,554	44.0	2,714	45.9	2,594	45.2	39 (1.5)
	- 비기간제 ¹⁾	840	14.5	689	11.7	737	12.9	-102 (-12.2)
남자	<비정규직근로자>	2,690	100.0	2,757	100.0	2,648	100.0	-42 (-1.6)
	○ 한시적근로자	1,628	60.5	1,668	60.5	1,609	60.8	-19 (-1.2)
	- 기간제	1,231	45.8	1,318	47.8	1,270	48.0	39 (3.2)
	- 비기간제 ¹⁾	397	14.8	349	12.7	339	12.8	-58 (-14.6)
여자	<비정규직근로자>	3,119	100.0	3,154	100.0	3,084	100.0	-35 (-1.1)
	○ 한시적근로자	1,766	56.6	1,735	55.0	1,722	55.8	-44 (-2.5)
	- 기간제	1,324	42.4	1,396	44.2	1,324	42.9	0 (0.0)
	- 비기간제 ¹⁾	442	14.2	340	10.8	398	12.9	-44 (-10.0)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함

3. 시간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는 175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6천명(3.3%)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구성비는 30.7%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하였으며, 여자(41.7%)가 남자(17.8%)보다 높게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남자 47만3천명, 여자 128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천명(0.5%), 5만4천명(4.4%) 증가하였음

< 시간제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2. 8		2013. 3		증감 (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	<비정규직근로자>	5,809	100.0	5,911	100.0	5,732	100.0	-77 (-1.3)
	○ 시간제	1,701	29.3	1,826	30.9	1,757	30.7	56 (3.3)
남자	<비정규직근로자>	2,690	100.0	2,757	100.0	2,648	100.0	-42 (-1.6)
	○ 시간제	470	17.5	506	18.4	473	17.8	2 (0.5)
여자	<비정규직근로자>	3,119	100.0	3,154	100.0	3,084	100.0	-35 (-1.1)
	○ 시간제	1,231	39.5	1,320	41.8	1,285	41.7	54 (4.4)

4. 비전형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는 220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천명(-2.3%) 감소하였음
- 가정내근로(-1만2천명, -15.8%), 일일근로(-5만7천명, -6.7%), 특수형태근로(-2만8천명, -4.7%)는 감소한 반면, 용역(2만7천명, 4.1%), 파견(7천명, 3.8%) 근로자는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 114만명, 여자 106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만2천명(-1.9%), 3만1천명(-2.8%) 감소하였음

< 비전형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2. 8		2013. 3		증감 (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	< 비정규직근로자 >	5,809	100.0	5,911	100.0	5,732	100.0	-77 (-1.3)
	○ 비전형근로자 ¹⁾	2,260	38.9	2,286	38.7	2,208	38.5	-52 (-2.3)
	- 파 견	190	3.3	214	3.6	198	3.4	7 (3.8)
	- 용 역	656	11.3	682	11.5	683	11.9	27 (4.1)
	- 특수형태근로	584	10.1	545	9.2	557	9.7	-28 (-4.7)
	- 일일근로	847	14.6	871	14.7	791	13.8	-57 (-6.7)
- 가정내근로	78	1.3	69	1.2	66	1.2	-12 (-15.8)	
남자	< 비정규직근로자 >	2,690	100.0	2,757	100.0	2,648	100.0	-42 (-1.6)
	○ 비전형근로자 ¹⁾	1,161	43.2	1,202	43.6	1,140	43.0	-22 (-1.9)
	- 파 견	88	3.3	101	3.7	82	3.1	-6 (-6.4)
	- 용 역	357	13.3	371	13.5	375	14.2	18 (4.9)
	- 특수형태근로	194	7.2	187	6.8	191	7.2	-4 (-1.9)
	- 일일근로	557	20.7	582	21.1	531	20.1	-25 (-4.5)
- 가정내근로	9	0.3	10	0.3	6	0.2	-3 (-32.6)	
여자	< 비정규직근로자 >	3,119	100.0	3,154	100.0	3,084	100.0	-35 (-1.1)
	○ 비전형근로자 ¹⁾	1,099	35.2	1,084	34.4	1,068	34.6	-31 (-2.8)
	- 파 견	102	3.3	114	3.6	115	3.7	13 (12.4)
	- 용 역	298	9.6	310	9.8	308	10.0	10 (3.2)
	- 특수형태근로	390	12.5	358	11.3	366	11.9	-24 (-6.1)
	- 일일근로	291	9.3	289	9.2	259	8.4	-31 (-10.8)
- 가정내근로	69	2.2	59	1.9	60	1.9	-9 (-13.4)	

1) 비전형 근로자 전체 규모 및 구성비는 일부 중복되는 각 유형별 근로자를 제외한 순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II.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1. 성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 남자는 264만8천명(46.2%)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2천명(-1.6%) 감소하였고, 여자는 308만4천명(53.8%)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5천명(-1.1%) 감소하였음

<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3. 3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체 >	5,809	100.0	3,394	1,701	2,260	5,732	100.0	-77	3,331	-63	1,757	56	2,208	-52	
남자	2,690	46.3	1,628	470	1,161	2,648	46.2	-42	1,609	-19	473	2	1,140	-22	
여자	3,119	53.7	1,766	1,231	1,099	3,084	53.8	-35	1,722	-44	1,285	54	1,068	-31	

2. 연령계층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를 연령계층별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 20대(-3만1천명, -3.1%), 30대(-8만6천명, -7.5%), 40대(-10만3천명, -7.3%)에서는 감소한 반면, 10대(2만1천명, 16.5%), 50대(5만5천명, 4.6%), 60세이상(6만7천명, 7.2%)에서는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3. 3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5,809	100.0	3,394	1,701	2,260	5,732	100.0	-77	3,331	-63	1,757	56	2,208	-52	
15~19세	124	2.1	35	108	11	144	2.5	21	56	21	113	5	14	3	
20~29세	999	17.2	668	317	181	968	16.9	-31	644	-24	312	-5	174	-7	
30~39세	1,148	19.8	740	251	366	1,062	18.5	-86	676	-65	231	-21	324	-42	
40~49세	1,403	24.1	761	350	606	1,300	22.7	-103	694	-67	343	-7	560	-46	
50~59세	1,207	20.8	633	284	635	1,262	22.0	55	654	21	308	25	649	13	
60세이상	929	16.0	556	392	461	996	17.4	67	607	51	451	60	487	27	

3. 산업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큰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86만2천명, 49.9%), 도소매·음식숙박업(105만명, 18.3%), 건설업(62만5천명, 10.9%)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6만4천명), 건설업(-4만1천명), 농림어업(-1만명)은 감소하였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5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1만8천명)은 증가하였음

<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3. 3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5,809	100.0	3,394	1,701	2,260	5,732	100.0	-77	3,331	-63	1,757	56	2,208	-52	
○ 농림어업	95	1.6	21	23	69	84	1.5	-10	17	-4	22	-2	63	-6	
○ 광공업	522	9.0	418	72	90	516	9.0	-6	403	-14	79	8	89	-1	
- 제조업	520	9.0	416	72	89	516	9.0	-5	403	-14	79	8	89	0	
○ 사회간접자본 및기타서비스업	5,193	89.4	2,955	1,607	2,101	5,132	89.5	-61	2,910	-45	1,656	50	2,056	-46	
- 건설업	666	11.5	209	82	454	625	10.9	-41	179	-30	73	-10	439	-15	
- 도소매· 음식숙박업	1,032	17.8	417	524	301	1,050	18.3	18	431	14	548	24	280	-21	
- 사업·개 인· 공공서비스업	2,837	48.8	1,984	936	1,039	2,862	49.9	25	2,011	27	975	39	1,040	1	
-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657	11.3	345	64	308	594	10.4	-64	289	-56	61	-3	298	-10	

4. 직업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178만1천명, 31.1%), 서비스·판매종사자(133만8천명, 23.3%), 관리자·전문가(100만8천명, 17.6%)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관리자·전문가(-8만2천명), 기능·기계조작종사자(-6만1천명), 사무종사자(-3만9천명)는 감소하였고, 단순노무종사자(9만1천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만명)는 증가하였음

<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3. 3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5,809	100.0	3,394	1,701	2,260	5,732	100.0	-77	3,331	-63	1,757	56	2,208	-52
관리자·전문가	1,090	18.8	816	338	152	1,008	17.6	-82	768	-48	303	-35	125	-27
사무종사자	715	12.3	618	145	74	676	11.8	-39	562	-56	159	14	96	22
서비스·판매종사자	1,334	23.0	517	516	596	1,338	23.3	3	516	-1	546	30	555	-4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1	0.4	12	2	9	31	0.5	10	17	5	4	2	14	5
기능·기계조작종사자	960	16.5	540	80	487	899	15.7	-61	487	-54	85	6	469	-18
단순노무종사자	1,690	29.1	891	621	943	1,781	31.1	91	980	90	660	39	949	6

5. 교육정도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정도는 고졸(248만1천명, 43.3%)이 가장 많았음
-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대졸이상(-8만3천명)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고졸(2천명)은 소폭 증가하였음

<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3. 3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5,809	100.0	3,394	1,701	2,260	5,732	100.0	-77	3,331	-63	1,757	56	2,208	-52
중졸이하	1,430	24.6	742	523	760	1,434	25.0	4	759	17	549	26	735	-25
고 졸	2,479	42.7	1,283	759	1,064	2,481	43.3	2	1,289	7	789	30	1,046	-18
대졸이상	1,900	32.7	1,370	420	436	1,817	31.7	-83	1,283	-87	419	-1	426	-9

Ⅲ. 항목별 분석

1.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지난 주 일자리 형태의 선택 동기를 살펴보면,
 -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경우는 정규직 근로자가 77.5%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49.2%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하였음
- 『자발적 사유』로 일자리 형태를 선택한 주된 내용으로,
 - 『근로조건에 만족』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각각 47.3%,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근로조건에 만족』은 1.6%p 상승하였고, 『안정적 일자리』는 0.5%p 하락하였음
- 『비자발적 사유』의 주된 내용을 보면,
 - 『당장 수입이 필요』가 정규직 근로자 70.8%, 비정규직 근로자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년동월대비 각각 1.7%p, 2.4%p 하락하였음

< 지난 주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단위: %)

	2012. 3					2013. 3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 전 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 발 적 사유	76.7	50.6	57.9	45.6	37.3	77.5	49.2	54.9	44.1	37.8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근로조건에 만족	(45.7)	(47.5)	(52.6)	(40.0)	(42.7)	(47.3)	(47.5)	(52.1)	(37.6)	(45.1)
· 안정적인 일자리	(46.7)	(23.0)	(30.2)	(5.2)	(16.7)	(46.2)	(22.8)	(30.4)	(5.6)	(17.0)
· 직장이동 등 ¹⁾	(5.2)	(16.8)	(12.3)	(38.5)	(13.0)	(4.2)	(17.7)	(12.5)	(43.4)	(12.5)
· 노력한 만큼 수입 등 ²⁾	(2.5)	(12.7)	(4.9)	(16.3)	(27.7)	(2.4)	(11.9)	(5.0)	(13.4)	(25.4)
- 비 자 발 적 사유	23.3	49.4	42.1	54.4	62.7	22.5	50.8	45.1	55.9	62.2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당장 수입이 필요	(72.5)	(74.6)	(73.4)	(65.8)	(81.9)	(70.8)	(72.2)	(71.1)	(63.3)	(80.7)
· 원하는 일자리 없음 등 ³⁾	(19.6)	(14.5)	(16.7)	(13.9)	(11.6)	(20.6)	(16.3)	(18.6)	(15.2)	(13.7)
· 직장이동 등 ¹⁾	(6.6)	(8.2)	(8.1)	(16.7)	(3.7)	(7.2)	(9.1)	(8.9)	(18.2)	(3.3)
· 노력한 만큼 수입 등 ²⁾	(1.2)	(2.7)	(1.8)	(3.6)	(2.8)	(1.4)	(2.4)	(1.4)	(3.3)	(2.3)

주) ()는 근로형태별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 또는 비자발적 사유별 구성비임

- 1)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학업·학원수강·직업 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 2)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타
- 3)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2. 평균 근속기간

-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6개월로 나타났음
 - 정규직 근로자는 7년으로 전년동월대비 3개월 늘어났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5개월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는 2년 7개월로 전년동월대비 2개월 줄어 든 반면, 시간제 근로자 1년 6개월, 비전형 근로자 2년 4개월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개월, 3개월이 늘어났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3년 이상 근속자 비율은 24.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
 - 특히, 비기간제 근로자의 3년 이상 근속자 비율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는 2.7%p 하락하였음
 - 반면, 비전형 근로자(24.7%)는 2.3%p, 시간제 근로자(15.1%)는 2.1%p 상승 하였음

<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 >

(단위 : %)

	2012. 3				2013. 3			
	평균 근속기간	평균 근속기간별			평균 근속기간	평균 근속기간별		
		1년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1년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 임금근로자 >	5년 3개월	33.8	22.3	43.9	5년 6개월	31.8	22.3	46.0
○ 정 규 직	6년 9개월	23.9	22.1	54.0	7년 0개월	21.3	22.4	56.3
○ 비정규직	2년 5개월	53.4	22.8	23.8	2년 5개월	53.6	22.1	24.3
- 한 시 적	2년 9개월	45.6	26.4	27.9	2년 7개월	47.1	25.9	27.0
· 기 간 제	2년 7개월	46.5	26.7	26.8	2년 7개월	46.9	26.6	26.5
· 비기간제	3년 4개월	42.9	25.6	31.5	2년 10개월	47.7	23.5	28.8
- 시 간 제	1년 4개월	67.5	19.4	13.0	1년 6개월	66.3	18.6	15.1
- 비 전 형	2년 1개월	59.0	18.6	22.4	2년 4개월	56.8	18.4	24.7

주) 근로형태별로 구성비의 가로 합이 100.0임

3. 주당 평균 취업시간

-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3.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시간 감소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46.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시간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38.2시간으로 0.9시간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는 41.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2시간, 0.5시간 감소하였으며, 시간제 근로자는 21.4시간으로 0.1시간 증가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 >

(단위 : 시간)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2013. 3	43.5	46.0	38.2	41.2	40.6	43.1	21.4	41.2
증감	-1.1	-1.4	-0.9	-1.2	-1.1	-1.8	0.1	-0.5
2012. 3	44.6	47.4	39.1	42.4	41.7	44.9	21.3	41.7

4. 최근 3개월(1~3월)간 월평균 임금

- 임금근로자의 2013년 1~3월 월평균 임금은 217만1천원으로 2012년 1~3월 월평균 임금(211만3천원)에 비해 5만8천원(2.7%) 증가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253만3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 7만9천원(3.2%)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141만2천원으로 2만원(-1.4%)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59만1천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간제근로자는 65만1천원으로 낮았음
-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시간제 근로자 3만원(4.8%), 비전형 근로자 2만1천원(1.6%) 증가한 반면, 한시적 근로자는 3만7천원(-2.3%) 감소하였음

<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명목임금)¹⁾ >

(단위 : 만원, %, 전년동월대비)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13. 1~3월 평균	217.1	253.3	141.2	159.1	159.3	158.6	65.1	137.0
증감	5.8	7.9	-2.0	-3.7	-0.9	-11.9	3.0	2.1
증감률	2.7	3.2	-1.4	-2.3	-0.6	-7.0	4.8	1.6
'12. 1~3월 평균	211.3	245.4	143.2	162.8	160.2	170.5	62.1	134.9

1) 이 자료는 근로형태별 근로자 전체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으로, 성·연령·학력·경력·근속기간·근로시간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차이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월평균 임금간의 단순비교를 통해 임금격차를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시간당 임금격차 분석결과와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월평균 임금격차 분석결과를 참고할 것

<참고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시간당 임금격차 분석결과 (고용노동부)

- 동일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별·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직종 등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임금총액¹⁾의 격차는 9.1%, 시간당 정액급여²⁾의 격차는 4.2%로 전년에 비해 각각 3.5%p, 3.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시간당 임금총액의 격차를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9%, 100~299인 사업체는 15.8%, 100인 미만 사업체는 5.1%로 나타남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격차 >

(단위 : %, %p)

	시간당 임금총액 ¹⁾				시간당 정액급여 ²⁾			
	전체	100인미만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100인미만	100~299인	300인 이상
2011	9.1	5.1	15.8	21.9	4.2	1.8	9.9	13.2
증감	-3.5	-2.9	-8.9	-2.7	-3.2	-2.6	-8.8	-1.6
2010	12.6	8.0	24.7	24.6	7.4	4.4	18.7	14.8

1) 시간당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 연간상여금 및 성과금총액의 1/12) / 총 근로시간

2) 시간당 정액급여 = 정액급여 / 소정 근로시간

※ 출처 : 고용노동부 「최근노동시장동향분석」 12년 9월호 “11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분석”

<참고2>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월평균 임금격차 분석결과

- (임금근로자 전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3년 12.2%로 전년동월대비 2.5%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전일제 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3년 9.8%로 전년동월대비 2.3%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 >

(단위 : %)

	2012. 3		2013. 3	
	임금근로자 (전체)	전일제 근로자	임금근로자 (전체)	전일제 근로자
월평균 임금격차	9.7	7.5	12.2	9.8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월평균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근속기간, 직업, 산업 등을 동일하게 제한한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격차를 임금근로자 전체와 전일제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제외)에 대해 분석한 결과임

5. 근로복지 수혜 여부

- 임금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퇴직금 68.4%(2.0%p), 상여금 69.6%(2.4%p), 시간외수당 47.8%(3.1%p), 유급휴일(휴가) 59.4%(2.6%p)로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직금 40.7%(0.1%p), 상여금 40.1%(1.4%p), 시간외수당 25.4%(1.8%p), 유급휴일(휴가) 34.0%(1.7%p)로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하였음
 -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59.6%(-1.8%p), 상여금 55.0%(-0.1%p), 시간외수당 35.9%(1.3%p), 유급휴일(휴가) 51.1%(1.1%p)로 근로복지 수혜율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퇴직금 12.0%(0.8%p), 상여금 17.3%(2.4%p), 시간외수당 8.6%(2.0%p), 유급휴일(휴가) 8.7%(2.4%p)로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게 나타났음

< 근로복지 수혜율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3. 3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 (휴가) ¹⁾	퇴직금	증감	상여금	증감	시간외 수당	증감	유급휴일 (휴가) ¹⁾	증감
<임금근로자>	66.4	67.2	44.7	56.8	68.4	2.0	69.6	2.4	47.8	3.1	59.4	2.6
○ 정 규 직	79.4	81.4	55.2	69.0	81.6	2.2	83.7	2.3	58.4	3.2	71.5	2.5
○ 비정규직	40.6	38.7	23.6	32.3	40.7	0.1	40.1	1.4	25.4	1.8	34.0	1.7
- 한 시 적	61.4	55.1	34.6	50.0	59.6	-1.8	55.0	-0.1	35.9	1.3	51.1	1.1
· 기 간 제	65.9	56.5	36.0	54.5	65.5	-0.4	58.9	2.4	38.7	2.7	56.4	1.9
· 비기간제	47.7	50.6	30.4	36.2	38.7	-9.0	41.4	-9.2	25.8	-4.6	32.3	-3.9
- 시 간 제	11.2	14.9	6.6	6.3	12.0	0.8	17.3	2.4	8.6	2.0	8.7	2.4
- 비 전 형	27.0	24.7	13.5	18.1	30.5	3.5	28.7	4.0	16.3	2.8	21.3	3.2

1)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6.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7.9%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하였으며, 건강보험은 71.5%(1.8%p), 고용보험은 67.9%(1.4%p)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였으며, 건강보험은 46.8%(0.3%p), 고용보험은 43.9%(-1.1%p)로 나타났음
- 한시적 근로자는 국민연금 58.6%(-2.1%p), 건강보험 68.0%(-1.1%p), 고용보험 63.4%(-2.1%p)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음
-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 13.9%(0.7%p), 건강보험 17.2%(1.8%p), 고용보험 16.3%(0.4%p)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음

< 사회보험 가입률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3. 3					
	국민 연금 ¹⁾²⁾	건강 보험 ¹⁾	고용 보험	국민 연금 ¹⁾²⁾	증감	건강 보험 ¹⁾	증감	고용 보험	증감
< 임금근로자 >	66.6	69.7	66.5	67.9	1.3	71.5	1.8	67.9	1.4
○ 정 규 직	79.6	81.3	78.3	81.3	1.7	83.2	1.9	80.5	2.2
○ 비정규직	40.5	46.5	45.0	40.0	-0.5	46.8	0.3	43.9	-1.1
- 한 시 적	60.7	69.1	65.5	58.6	-2.1	68.0	-1.1	63.4	-2.1
· 기 간 제	64.4	74.2	70.0	63.6	-0.8	74.7	0.5	69.5	-0.5
· 비기간제	49.6	53.6	51.9	40.8	-8.8	44.3	-9.3	42.1	-9.8
- 시 간 제	13.2	15.4	15.9	13.9	0.7	17.2	1.8	16.3	0.4
- 비 전 형	22.1	31.0	29.2	24.0	1.9	33.6	2.6	30.3	1.1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지역 연금 포함

7. 교육·훈련 경험 비율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 임금근로자의 46.4%가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34시간으로 나타났음
-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정규직 근로자는 50.6%, 비정규직 근로자는 37.7%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9.5%p, 7.6%p 상승하였음
-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정규직 근로자는 36시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2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시간, 2시간 감소하였음
-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비용 부담 주체는 『민간기관』이 72.6%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하였음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교육·훈련비용의 부담 주체인 경우는 정규직 근로자가 24.1%로 1.7%p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2%로 3.9%p 증가하였음

< 교육·훈련¹⁾ 경험 비율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

(단위 : %, 시간)

	2012. 3					2013. 3				
	교육·훈련 경험있음 ²⁾	평균 교육· 훈련시간 ³⁾	비용 부담 ⁴⁾			교육·훈련 경험있음 ²⁾	평균 교육· 훈련시간 ³⁾	비용 부담 ⁴⁾		
			민간 기관	정부 또는 공공 기관	기타			민간 기관	정부 또는 공공 기관	기타
< 임금근로자 >	37.5	36	71.6	23.3	5.1	46.4	34	72.6	23.1	4.3
○ 정 규 직	41.1	39	69.7	25.8	4.4	50.6	36	72.1	24.1	3.7
○ 비정규직	30.1	29	76.7	16.3	7.0	37.7	27	73.9	20.2	6.0
- 한 시 적	34.9	26	71.6	22.3	6.1	45.2	25	67.4	27.0	5.6
· 기 간 제	39.1	25	69.2	24.4	6.4	50.1	24	65.6	29.3	5.1
· 비기간제	22.1	32	84.1	11.4	4.6	28.0	31	78.7	12.3	9.1
- 시 간 제	18.1	24	52.7	32.8	14.6	27.1	23	49.2	40.4	10.4
- 비 전 형	29.4	33	90.7	4.1	5.2	34.6	28	92.1	3.6	4.3

1) 직업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2) 각각의 근로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자의 평균 교육·훈련 시간임

4)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자의 교육·훈련의 비용 부담 주체임

8. 주40시간 근로제 실시 여부

- 임금근로자 중 직장에서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65.8%로 전년동월대비 5.6%p 상승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은 5.6%p 상승한 70.7%,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은 5.0%p 상승한 55.6%가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40시간 근로제 실시 비율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3. 3	증감
< 임금근로자 >	60.2	65.8	5.6
○ 정규직	65.1	70.7	5.6
○ 비정규직	50.6	55.6	5.0
- 한시적	64.2	69.3	5.1
· 기간제	70.4	76.6	6.2
· 비기간제	45.4	43.4	-2.0
- 시간제	39.0	44.0	5.0
- 비전형	39.3	45.9	6.6

9.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

- 임금근로자 중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비율은 54.2%로 전년동월대비 1.8%p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55.3%)가 정규직 근로자(53.6%) 보다 높게 나타났음
- 기간제 근로자(85.2%)의 서면작성 비율이 가장 높고, 시간제 근로자(37.3%)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3. 3	증감
< 임금근로자 >	52.4	54.2	1.8
○ 정규직	51.6	53.6	2.0
○ 비정규직	54.0	55.3	1.3
- 한시적	75.8	75.6	-0.2
· 기간제	84.2	85.2	1.0
· 비기간제	50.0	41.5	-8.5
- 시간제	32.6	37.3	4.7
- 비전형	41.5	44.8	3.3

10. 노동조합 가입 비율

-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1%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하였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16.5%(1.2%p), 비정규직 근로자는 2.8%(-0.2%p)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조합 가입 비율 >

(단위 : %)

	2012. 3				2013. 3			
	가입 하였음	노동조합 없음	가입대상 아님 ¹⁾	가입하지 않음 ²⁾	가입 하였음	노동조합 없음	가입대상 아님 ¹⁾	가입하지 않음 ²⁾
< 임금근로자 >	11.2	75.6	7.1	6.1	12.1	74.4	7.5	6.0
○ 정 규 직	15.3	71.4	5.5	7.9	16.5	70.3	5.5	7.8
○ 비정규직	3.0	83.9	10.4	2.7	2.8	83.2	11.7	2.3
- 한 시 적	4.5	76.4	15.0	4.0	4.2	75.0	17.2	3.6
· 기 간 제	4.1	73.8	18.2	3.9	4.1	71.1	20.7	4.0
· 비기간제	5.9	84.1	5.6	4.5	4.3	88.6	4.9	2.1
- 시 간 제	0.1	87.8	11.6	0.6	0.4	86.0	13.0	0.6
- 비 전 형	1.6	93.0	4.5	0.9	1.4	92.6	5.3	0.7

1)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2)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 임금근로자의 18.1%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 가능자의 66.8%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조합 가입 가능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67.9%, 비정규직 근로자는 54.8%가 가입하였음

< 노동조합이 있는 가입대상자 중 노동조합 가입 비율 >

(단위 : %)

	2012. 3			2013. 3		
	노동조합 가입가능자	가입하였음	가입하지 않음	노동조합 가입가능자	가입하였음	가입하지 않음
< 임금근로자 >	17.3 (100.0)	(64.6)	(35.4)	18.1 (100.0)	(66.8)	(33.2)
○ 정 규 직	23.2 (100.0)	(66.1)	(33.9)	24.2 (100.0)	(67.9)	(32.1)
○ 비정규직	5.6 (100.0)	(52.9)	(47.1)	5.1 (100.0)	(54.8)	(45.2)
- 한 시 적	8.6 (100.0)	(52.9)	(47.1)	7.8 (100.0)	(53.7)	(46.3)
· 기 간 제	8.0 (100.0)	(51.1)	(48.9)	8.1 (100.0)	(50.7)	(49.3)
· 비기간제	10.4 (100.0)	(56.9)	(43.1)	6.4 (100.0)	(67.3)	(32.7)
- 시 간 제	0.6 (100.0)	(13.5)	(86.5)	1.0 (100.0)	(40.4)	(59.6)
- 비 전 형	2.4 (100.0)	(64.6)	(35.4)	2.1 (100.0)	(65.3)	(34.7)

11. 임금 형태

○ 임금근로자의 임금지불형태는 월급제가 6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봉제(16.4%), 일급제(9.9%) 순으로 나타났음

- 월급제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72.4%, 비정규직 근로자는 43.1%로 나타났음

- 월급제를 제외하고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연봉제(19.9%)가,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급제(23.0%)가 높게 나타났음

< 임금 형태¹⁾ >

(단위 : %)

	2012. 3						2013. 3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급제	5.3	2.4	11.3	8.7	30.8	5.4	5.4	2.1	12.5	9.3	32.4	5.0
일급제	10.5	4.4	22.7	13.5	23.3	35.1	9.9	3.6	23.0	14.5	23.2	34.8
주급제	0.2	0.1	0.3	0.2	0.8	0.3	0.1	0.0	0.3	0.1	0.5	0.4
월급제	60.8	70.1	42.3	57.1	34.3	28.2	63.0	72.4	43.1	58.8	33.0	30.2
연봉제	17.5	20.9	10.6	17.5	0.5	2.2	16.4	19.9	9.0	14.7	0.7	2.2
실적급제	5.5	2.0	12.6	3.0	9.9	28.8	5.2	1.9	12.1	2.6	9.9	27.3
기타	0.1	0.1	0.1	0.1	0.4	0.1	0.1	0.1	0.1	0.0	0.2	0.1

1) 임금형태는 임금지급 주기가 아닌 임금을 산정하는 단위(시간, 일, 주, 월, 년 등)에 기초하여 파악

<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2012. 3			2013. 3			증 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국	17,421	11,612	5,809	17,743	12,012	5,732	322	400	-77
서울	3,852	2,604	1,248	3,915	2,651	1,264	63	47	16
부산	1,177	808	369	1,182	796	386	6	-12	17
대구	850	600	250	848	599	249	-2	-1	-1
인천	1,060	677	383	1,092	745	347	32	68	-36
광주	509	323	187	502	320	182	-7	-2	-5
대전	548	337	211	555	334	221	7	-3	10
울산	436	308	128	436	313	124	0	4	-4
경기	4,384	2,942	1,441	4,454	3,098	1,356	70	156	-85
강원	417	245	172	443	272	171	26	27	-1
충북	491	345	147	512	355	157	20	11	10
충남	674	464	210	736	499	236	62	35	27
전북	508	317	191	540	330	209	32	13	19
전남	468	270	197	480	297	183	12	27	-14
경북	828	548	280	818	534	284	-10	-14	4
경남	1,038	713	325	1,052	769	284	14	55	-41
제주	182	111	72	180	100	80	-2	-11	9

<붙임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1. 실시 배경

- 임금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및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파견, 용역, 특수형태, 일일, 가정 내)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2. 추진 경과

- 근로형태의 통계상 분류 현황 및 개편방안 보고(2000. 1)
- 부가조사 항목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2000. 6)
- 근로형태통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2001. 2)
- 근로형태 관련 시험조사 실시(6개 항목)(2001. 3)
- 부가조사 조사항목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2001. 7)
- 근로형태 및 인력이동 실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2001. 8)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2002. 3월 및 8월)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2003~2006. 매년 8월)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2007~현재. 매년 3월, 8월)

3.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 조사항목 : 근로형태 관련 19개 항목
 - 계약반복 · 갱신여부
 - 단기근로여부
 - 계속근로 가능여부 및 계속근로 가능 사유
 - 향후기대 근속기간
 - 근속기간 제한이유
 - 근로시간 형태
 - 임금 지급업체
 - 실제 근무 사업체(장)
 - 특수형태근로 종사여부
 - 주로 일한 장소
 - 지난 주 일자리 취업동기 및 주된 취업 사유
 - 사회보험 가입 여부
 - 퇴직금 등 수혜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노동조합 가입여부
 - 임금 형태
 - 3개월간 평균 임금
 - 교육 · 훈련
 - 주40시간 근로제 실시 여부

4. 용어설명

- 비정규직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파 견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 역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 가정 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 일일(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붙임 2>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02. 7. 22.)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 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7월 23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음의 사항들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붙임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격차 분석 개요

1. 분석 방법

- 임금근로자 전체 또는 임금근로자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전일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한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월평균 임금격차를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2. 분석 모형

- $\ln w = X\beta + D\delta + \epsilon$

- 종속변수($\ln w$): 월평균 임금 (로그변환)

- 독립변수(D): 비정규직 근로자 여부

- 통제변수(X):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근속기간, 직업, 산업, 사업체규모, 노조유무

※ 단,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추가로 통제하였음

3. 임금격차 산출 방법

- 회귀모형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산출하였음

$$\text{임금격차(\%)} = \left(\frac{\text{정규직 임금} - \text{비정규직 임금}}{\text{정규직 임금}} \right) * 100 = (1 - e^{\hat{\delta}}) * 100$$